



# 행복도시 교통체계 업그레이드...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

- '금강 횡단교량' 신설 연구용역 실시...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비
- 세종-공주 간선급행버스 노선 올 하반기 착공~25년 하반기 운행 목표
- 대중교통 환승 할인, 대전 이어 공주·청주까지 확대

□ 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4월 18일(목)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.

- 행복청은 올해 도시중심부 교통체계 개선방안(2023.11 발표)을 본격 추진하고, 관계기관이 세종~공주 간선급행버스 노선 공사에 착수한다. 또한, 대전~세종 간 적용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공주와 청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## <금강 횡단교량 신설, 금남교·갈매로 확장 등 교통 수요 대응>



	사 업 내 용
1	중앙공원내 96호선 개선
2	중앙녹지공간 북측: 절재로·임난수로 개선
3	중앙녹지공간 남측: 금남교·갈매로 개선
4	금강 횡단 교량(위치 미정) 신설

□ 행복청은 최근 금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중앙공원 내 96호선 개선, 금남교·갈매로 노선 확장 검토에 착수하였다.

- 금강 신규 교량은 4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, 연내 건립 타당성과 정확한 위치 및 규모, 교량 형식 등이 도출될 전망이다.

- 현재 중앙공원을 가로지르는 96호선 도로는 중앙공원 계획을 감안하여 선형을 조정하고, 보행자 및 차량 안전, 환경을 고려하여 노선을 계획한다. 중앙녹지공간 남측 금남교·갈매로는 2차로 확장을 검토하고 갈매로-나성 1·2교-중앙공원과 연계할 예정이다.
- 임난수로·절재로 등 중앙녹지공간 북측 도로 개선방안은 국회세종 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의 교통 수요, 건립 계획 등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국회세종 의사당 계획 시기와 연계하여 착수할 예정이다.

## <외곽순환도로 및 생활권 내 도로 순차적 공사개통>

-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(행복대로)는 중장거리 교통이 도시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계획된 왕복 6차로 간선도로다. 도시 내부의 일반 도로와 달리 진·출입 외에는 신호 없이 제한속도 70km/시 이내로 달릴 수 있으며, 현재 전체 28.5km 중 1생활권부터 5생활권까지 구간인 25.1km가 개통되었다.
  - 작년에 개통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길이 5.4km(금빛노을교 925m, 터널660m, 지하차도 3,175m, 기타 640m) 규모로, 개통과 함께 집현교차로 및 너래교차로 등의 교통량이 대폭 감소\*하는 등 인근 도로 소통이 개선되었다.
    - \* 집현교차로 7,645대→3,384대(-55.7%), 너래교차로 17,419대→11,742대(-32.6%)
  - 잔여 구간인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길이 3.3km(들목교 610m, 지하차도 1,223m, 기타 1,467m) 규모로 2026년 전후 준공 예정이다.
- 생활권 내 도로는 주민 입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. 2023년 12월 6-3생활권(산울동) 입주가 진행되면서 산울동 내 도로 6.5km가 준공되었으며, 올해는 1-1생활권 고운동 진경산수마을 인근 도로와 4-2생활권 공동캠퍼스 진입도로 등 총 6.6km가 개통될 예정이다.

## <간선급행버스 연간 이용객 1천만명 돌파… 내년 하반기부터 공주 간선급행버스 운행>

- \* BRT(Bus Rapid Transit, 간선급행버스체계) : 통행속도, 정시성,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, 고효율의 대중교통 체계

□ 현행 광역 간선급행버스 노선은 대전, 오송, 청주공항으로 운행되고 있으며, 내부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비0~비5 노선의 2023년 연 이용객은 1,123만 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하였다.

- 신규 노선으로는 세종~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를 2025년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. 또한,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간선급행버스 등 신설이 필요한 노선을 발굴하는 한편, 관계기관(국토부, 지자체)과 함께 청주·조치원 등 광역 간선급행버스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.



<세종-공주 간선급행버스 노선도>

□ 이에 더해, 연말까지 현재 대전과 세종 간에 적용되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공주 및 청주까지 확대하는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, 간선급행버스 첨단정류장\*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조성되는 5~6생활권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설계에 반영한다.

\* 첨단정류장: 대형 쉼터, 스크린도어, 냉·난방의자, 태양광설비, 투명 엘리디, 엘시디 전광판 등의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정류장

## <보행자-자전거 분리 공간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>

□ 행복도시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고자 보행·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행복도시 교통수단분담률 중 자전거(3.1%) 및 보행(42.3%)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공영자전거 이용률도 급증\*하고 있다.

\* 공영자전거 ‘어울링’ 최근 5년간 이용건수(582,408건 → 2,453,124건)와 회원 가입자 수(62,152명 → 248,120명) 약 4배 증가

□ 행복도시 자전거도로는 총 478km가 계획되어 있으며, 그 중 ‘23년까지 전체의 68%에 해당하는 349km를 개통했다. 특히, 도시 내 어디에서든 5분이면 금강과 방축천, 제천 등 일종의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.

- 행복청은 향후 새로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의 분리 공간을 설치하고,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로를 연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### **<신호 조정과 교차로 개선 통해 교통흐름 향상>**

□ 행복청은 2013년부터 교통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흐름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상습 지·정체 구간 해소를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.

- 작년 10월 실시한 제20차 교통량 조사\*에서는 제18차 조사('22.10) 대비 교통량이 다소 감소(오전 2.7%, 오후 0.9%)하였으며, 제18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·정체가 심한 주요도로의 교차로 신호주기(현시)를 조정한 결과 평균지체시간이 20~40% 감소\*\*하는 효과가 나타났다.

\* (제20차) 10.26.(목) 36개소 교통량 조사 실시 / (제21차) 10월 조사예정

\*\* 지체시간(초/km) 기준 절재로(10분 54초→6분 50초), 한누리대로(10분 49초→7분 27초)

- 또한, 교통흐름 개선 관계기관 T/F\*는 제20차 교통량 조사 결과 및 민원 내용 분석을 토대로 개선 대상 교차로를 선정하고 신호 최적화, 차로운영 조정,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\* 행복청, 세종시, 세종경찰청, 세종남·북부경찰서, 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여 매년 4차례 교통흐름 개선회의 개최

□ 김홍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“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대응하는 중·장기적 교통대책과 함께,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교통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개선을 병행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계획국	책임자	과 장	신성현	(044-200-3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현	(044-200-3281)
<총괄>	교통계획과	담당자	사무관	문병협	(044-200-3284)
		담당자	사무관	마경완	(044-200-3285)
		담당자	사무관	정유선	(044-200-3291)

